

# “청년채용 적극 나서달라” “창조혁신센터 성공 최선”

朴대통령 재계 총수 17명과 청와대 오찬

전국 18개 창조혁신센터 지원 16개 대기업 3년간 136조원 투자  
현대차, 광주 1900억 투자펀드...효성, 전북 30개 강소기업 육성

박근혜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지난 24일 청와대 회동은 현 정부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의 성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한목소리로 다짐하는 자리였다. 박 대통령이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으로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재계 총수들도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창조경제 성공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추진단은 각 지역별 센터가 혁신적으로 가지 않도록 점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 기관들을 선도하고, 지역특화사업을 키워내는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센터는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각 지역에 유능한 숨은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접점이 되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서 전북·충남·전남센터들 통해서 걸려진 탄소소재·태양광·바이오화학 벤처 중소기업은 효성·한화·GS의 사업 분야를 넓히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대구·충북·대전·광주·울산센터에서 지원기업의 특허 공유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은 삼성·LG·SK·현대에 든든한 우군이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인사 말을 통해 “혁신센터들 중심으로 지역창업 열기가 고조되고, 국내외에서 주목하는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제 우리 기업들은 보다 속도감 있게 박차를 가해 혁신센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허 회장은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지역 역량을 결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전북 효성의 탄소 클러스터, 충북 LG의 K-뷰티 등 국가적으로도 중대하며 미래 사업으로 정부·지자체·지역 기업과 함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낙후된 분야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며 “전남 GS의 농수산벤처, 광주 현대자동차의 전통시장 사업과 같이 1차 산업, 낙후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동차분야 창업, 수소연료전지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 구축, 서민생활 분야 창조경제 사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20여 개의 벤처 창업, 19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스마트 공장 40개 구축, 전통시장 리모델링 등의 성과 사례를 소개했다.

효성은 2017년까지 전북에서 탄소소재와 농생명,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150개 기업의 창업을 돕고 30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효성은 전라북도와 함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역량을 모은 창조경제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 중인 16개 대기업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3년간 136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전담기업을 대상으로 신성장동력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신성장 동력 분야에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136조원을 투자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5조원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가 지원하는 곳이 17개며 포스코가 주도하는 포항 센터까지 합치면 모두 18개가 있다.

한편, 이날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과 조진 미래전략수석이 춘추관에서 진행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에 따른 결산 브리핑에서 “광주혁신센터는 대인시장 시범점포(2곳)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점포 리모델링·마케팅, 모바일 홈페이지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또 도심공동화 지역인 광주 발산마을을 새로운 ‘창조문화마을’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고 소개했다.

또 “농수산분야에서는 전남(농수산벤처 육성), 세종(스마트팜 보급), 강원(농업빅데이터 수집·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단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 혁신센터가 감점을 연계, 스마트팜 고도화 및 확산사업을 실시 중이며 충남, 전북 등 9개 혁신센터가 농식품부와 협업해 농수산식품벤처 경진대회를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경북 혁신

센터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금융지원·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현재 총 45개 기업(광주 20개, 경북 25개)을 구축했다”며 “실제로 광주 하남산단의 ㈜동양금속은 주조설비의

불량을 자동으로 검출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해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연평균 8300만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봤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朴대통령 오늘부터 여름휴가...관저서 휴식

임기 반환점 앞두고 ‘개혁과 경제’ 하반기 국정 현안 구상

박근혜 대통령은 27일부터 시작하는 닷새간의 여름휴가 기간 청와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차분하게 국정현안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청와대 참모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용한 여름휴가를 택했다. 청와대 바깥에서 며칠간 휴식을 취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휴가지 인근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방안 등 여러 건의사항이 올라왔으나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신,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틈틈이 국정 현안을 챙기며 하반기 정국구상을 기다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여름휴가 정국구상의 키워드는 ‘개혁과 경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임기반환점을 앞둔 박 대통령으로서 올해 하반기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에서 성과를 내야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여파로 5분기째

0%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휴가철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국정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국민 삶에서 체감이 되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책임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휴가 기간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등 여러 국정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하반기 정국구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기업인 사면 문제 등도 박 대통령의 현안점점 리스트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면 문제는 박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고, 관계부처에서 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아시아나 광주~김포 노선 감축

하루 3회로...KTX 개통후 승객 30% 줄어 대한항공도 검토

아시아나항공이 광주공항과 김포를 오가는 노선 운항을 감축한다. 호남선 KTX 개통에 따른 승객 급감이 이유다.

2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27일부터 김포~광주 노선 운항을 하루 왕복 5회에서 3회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포발 광주행 여객기는 오전 9시55분, 오후 3시10분, 오후 5시50분, 광주발 김포행 여객기는 오전 11시10분, 오후 1시50분, 오후 4시30분에 각각 3차례 운항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 4월 광주에 KTX 개통 후 김포~광주 노선 승객이 30% 이상 감소해 불가피하게 감편하게 됐다”며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탑승률이 낮은 처음과 마지막 운항 시간대를 감편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역시 김포~광주 노선을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과 마찬가지로 하루 2회 운항하고 있으나 최근 운항 감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포~광주 노선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크게 이익이 남는 노선은 아니었으며 KTX 개통 후에는 비행기를 띄울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앞서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 한국교통연구원은 서울~광주 구간의 항공기→KTX 전환율이 53.5%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후 개통 100일을 맞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광주로 이동한 KTX 승객은 전년 동기대비 16만명(67%)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항공과 고속버스 이용객은 각각 전년 대비 26%(1만8000여명)와 17%(11만 8000여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www.gjstec.or.kr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속에 각종 단체 행사와 편의시설 이용 및 다양한 국비지원 사업 지원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렴한 가격에 각종 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시설과 레스토랑, 헬스, 사우나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 가능

- 대규모 국제회의실, 대연회장, 객실 등 호텔식 규모로 운용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 30여년의 역사와 호남최고의 명성이 있는 신양파크호텔에 위탁운영

**G S T E C**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Gwangju Science & Technology Corporation center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과기로 339 | T.(062)609-0500~1 F.(062)609-0521

문의전화 예약상담 062)609-0500~1